

과종기 및 재배지역 차이에 따른 메밀의 성장해석

이기철¹⁾, 박병재*, 배원호, 최수용, 장광진²⁾, 허 권, 박철호

¹⁾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식물응용과학부, ²⁾한국농업전문학교

산간지에서 메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과종기 구명시험을 위하여 수원1호를 공시품종으로 하여 고도가 다른 춘천시 신동면(해발 150m), 영월군 주천면(해발 250m), 홍천군 내면(해발 650m) 등지에서 5월 중순(신동면), 5월 하순(내면), 6월 초순(주천면)부터 각각 2주 간격으로 6회에 걸쳐 과종한 후 과종기별로 1차 수확은 과종 후 4주째에, 2차 수확은 과종 후 6주째에 10주씩 수확하여 엽면적과 건물중을 재어 작물생장율(CGR), 상대생장율(RGR), 순동화율(NAR), 엽면적율(LAR), 특수엽면적(SLA), 엽면적 지수(LAI), 엽면적 기간(LAD), 건물기간(BMD) 등 8개항목에 대한 성장해석을 실시하였다.

신동면 지역에서 5월 중순과 6월 초순에 과종하였을 때 CGR, RGR, NAR 등이 대체로 높아 생육이 양호하였음을 나타냈고 6월 하순 이후로는 생육이 저조하였으며 7월 하순과 8월 중순에 과종한 구에서 엽면적과 엽면적 기간의 증가세가 보였으나 RGR과 NAR은 감소하였다. NAR의 최고치는 6월 하순 과종구에서 0.0100 W A⁻¹ T⁻¹이었다.

내면 지역에서 LAI, CGR, LAD, BMD, LAR 등은 7월 중순 과종구에서 가장 높았다. NAR은 6월 하순 과종구에서 가장 높았다가 그 후 과종구에서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6월 중순 이전의 과종구에 비하여 7월 중순과 8월 초순 과종구에서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천면 지역에서는 7월 초순과 중순경에 과종한 것이 NAR이 가장 높았으며 8월 중순 과종은 현저하게 낮은 생장율 및 순동화율을 보였다.

신동면과 내면에서는 6월 하순 과종구에서, 주천면에서는 7월 초순부터 중순에 과종한 구에서 가장 양호한 생육을 나타내었으므로 고도간 생장율의 현저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